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17일(月) : 주간회의(11시)
- 10월 19일(水)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노사 기정진 연보(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2호)
- 10월 20일(木)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최제학 습재실기(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연구원 행사

- 44회 문화강좌 안내
 - 주 제 : 일본 문학가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에 나타난 재일 조선인의 삶
 - 강 사 : 서동주(서울대 HK교수)
 - 날 짜 : 2016.11.05.(토) 16시
 - 장 소 : 한지산업관 201호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10월 12일(水)에는 '호남인물 읽기'의 일환으로 『노사 기정진 연보』를, 13일(木)에는 '전북의병사료 읽기'의 일환으로 최제학의 『습재실기』를 교재로 하여,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의가 연구원 201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0월 12일(水)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노사 기정진의 신도비문과 관련해서 면암 최익현에게 보내는 연재 송병선의 편지를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10월 13일(木)에는 김건우 교수님의 사정으로 인해 휴강하였습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 목 18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쉰 고려인연합회 '조 바실리' 회장 방문

: 10월 13일(목)에 전주대학교에 특강을 하기 위해 온 러시아 고려인연합회 '조 바실리' 회장과 '김 슬라바' 사무국장이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의 연구원 안내 및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 답사 및 산행

: 지난 2016년 10월 15일(토)에 연구원 소모임 “인자요산”의 답사 및 산행이 있었습니다. 주말 비 소식에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번 답사는 모처럼 김정석 회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번 인자요산 답사는 11월 19일 섬진강과 옥출산입니다. 순창군 풍산면에 위치한 옥출산과 일제 강점기 내륙 철로의 흔적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6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날 짜 : 2016.10.13(木) 오후 5시
- 장 소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의실
- 안 건 : 운영위원 임면 관련의 건
- 내 용 :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운영위원 3인에 대한 면직, 그리고 신규 3인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면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 및 승인할 예정입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淸平調詞(第2首)

청평조사(제2수)

一枝濃艷露凝香(일지농염로응향) 한가지 모란 꽃에 이슬에 향이 엉겨
雲雨巫山枉斷腸(운우무산왕단장) 무산의 운우지정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니,
借問漢宮誰得似(차문한궁수득사) 묻노라, 한나라 궁중에서 누가 이를 닮았다고 하려나?
可憐飛燕倚新粧(가련비연의신장) 새 단장한 어여쁜 비연이라 할까.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감 상

- 맑은 이슬에 황홀한 향이 밴 한 송이 모란꽃은 다름 아닌 현종이 사랑이 깃든 양귀비의 얼굴이다. 나아가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육화(肉化)시킨 표현이니, 현종의 사랑에 함초롬히 피어난 양귀비이다. 이 깊고도 간절한 사랑은 '운우지정'이라는 말을 남긴 초(楚)나라 양왕(襄王)과 무산(巫山) 신녀의 사랑에나 비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옛날의 누구와 비할 수 있으련지. 아마도 탁월한 미모에다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몸이 가벼워 '하늘을 나는 제비'란 뜻의 '비연(飛燕)'으로 불렸다는 한나라 성제(成帝)의 황후에 비견할 수 있으리니. 두 번째 수 역시 애정 넘치는 눈길로 양귀비를 바라보며, 신화와 역사를 두루 살펴봐도 견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양귀비가 한없이 예쁘다고 여기는 현종의 시선을 그려내었다.

이때 고력사는 침을 꿀떡 삼켰다. 천하의 권력자인 자신에게 감히 신발을 벗기라며 방자하게 노는 이 건방지고 버릇없는 이백을 제거할 빌미가 눈에 띈 탓이다.

■ 역사속의 오늘

○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호프집 참사

2015년 11월 14일 '민중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317일만에 숨을 놓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불법, 폭력 집회 진압을 위한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 언론사 논설위원은 "왜 백남기씨에게 국가가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하는가? 절도범이 경찰에 쫓기다 추락해 죽으면 앞으로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하는가?"라는 말을 토론 프로그램에서 신념에 찬 목소리로 전하기도 했다.

국무총리를 비롯 사건 당사자인 경찰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일관되게 피해 당사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미 당시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폭력시위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명시했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문 참고)

대체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 있기에 국가인 가라는 질문에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늘의 역사.

17년 전 오늘,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라이브II 호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중·고생 57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업주는 불이나자 소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돈을 내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다 도주했다. 출입구 한곳을 제외하고 창문은 통유리로, 비상구는 베니어합판으로 막아놓은 가게 안은 아이들의 어린 숨을 불쏘시개 삼았던 참혹한 화마에 속수무책이었다.

이 사건은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임에도 시청·구청·경찰서·소방서 공무원들이 업주와 결탁해 불법과 탈법이 가득 찬 영업공간에서 일어난 참사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언론이 130여명이 넘는 사상자들의 이름 아래 쏟아낸 것은 "왜 그런 곳에 가서 죽고 다쳤느냐?"였다. 공무원 61명이 업주에게 전세금을 지원받고 일상적으로 뇌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노련한 시치미에 인천시는 자신들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답했고 인천시 교육청은 교장회의를 소집해 "학생단속강화"를 소리쳤다.

정부는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었다.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매달 2,000여만 원을 업주에게 받아 사이 좋게 나눠가지며 불법행위 단속이 시작되기 전 미리 업주에게 알려줬고 불법 증개축을 눈감았으며 소방시설 미설치를 아무렇지 않게 눈감아줬다. 업주는 영업정지명령과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아도 관계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영업을 계속했다.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국가를 향해 “그렇다면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놀랍게도 함성의 주체는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국가와 어른들을 향해

“저희들에게도 이번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저희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제 2의 인현동 참사는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성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대중 절충하고 덮어가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일갈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었고 교복만 입었을 뿐 “날나리들이 놀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칼날이 되어 유가족의 가슴을 헤집을 때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것은 숨을 놓은 이들의 친구들이었다.

당연하다는 듯 국가는 교육청을 앞장세워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엄히 문책”했고 사건은 세간의 기억에서 지움 당했다.

“왜 그런 나쁜 곳에 가서 죽었느냐?”.....

17년이 지난 후 정부는 “왜 불법집회에 참가해서 죽음을 자초했느냐?”고 묻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이들이여, 부디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국가는 개인의 행복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법대로만 하면 된다. 부디...